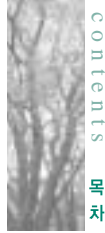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What Do You Do With a Broken Relationship?



contents
목차

■ 발간사	4
■ 서문	6
증상 인식하기	7
증상 악화시키기	10
바른 방법	14
바른 실천	20
제 1단계: 사랑하라	20
제 2단계: 자신을 낮추라	25
제 3단계: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28
제 4단계: 화해를 청하라	31
제 5단계: 용서하라	34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41
관계 유지	49
사례: 시도해본 사람들	54
첫 걸음을 내딛으라	58

발간사



인간은 좋은 인간관계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대인관계를 제대로 회복하

지 못하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너무도 아픈 체험을 많이 해 왔고 나라가 망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민족적 결함을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신앙성장 시리즈 제24권에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자는 열 번을 읽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 아픈 곳을 만져주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

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읽어서 유익을 얻으시고 그냥 집에 묻어두지 마시고 필요한 분에게 넘겨주셔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안에 두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책입니다. 이 책을 잘 번역해주신 차동재 목사님과 주의 깊게 읽고 잘 손질해 주신 신영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들 외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서를 출판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 오늘의 양식사'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2005년6월
발행인 김상복 목사
한국 오늘의 양식사

서 문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을 직시하자. 모든 인간관계에는 위기가 꼭 찾아온다. 누군가가 기분이 상하고, 가슴 아픈 불화의 과정이 시작된다. 태도가 급격히 변한다. 적절치 못한 말과 행동이 곧 따라 나온다. 관계가 뒤틀리다가 아예 끊어지기도 한다.

이것이 당신의 경험인가? 그렇다면, 제임스 피트먼이 쓴 이 소책자를 통해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실천적 해답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마틴 R. 디한 2세,
RBC 회장

증상 인식하기 Recognizing The Symptoms

당신이 외딴 섬에 홀로 살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고통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고의 우정도 상해버릴 수 있다. 결혼생활에는 힘든 시기가 있다. 직장동료들은 사무실을 싸움터로 바꿔놓을 수 있다. 교회들은 성격적 갈등으로 갈라진다. 가족들은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폭발한다. 이웃들은 개가 짖는 문제로 다툰다. 문제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에 독감, 암, 심장병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

신체 질환에서처럼, 문제를 암시하는 분명한 증상들이 있다. 마치 빨간 불이 점멸하듯이, 이 증상들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경고한다. 당신은 아마 경험상 다음의 증상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회피.** 오랜 친구도 갈등을 겪고 나면 갑자기 서로 피한다. 전에는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서로 만나면 일정 거리를 둔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단지 사람들을 참지 못 하겠다는 것이다”

-리누스

* **짜증.** “너 뭐라고 말했어?” “날 좀 내버려둬!” “그 여자 만 보면 구역질이 나!” “참견 말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 야?” “아니라고 말했잖아!” “질렀다!” “좀 떨어져 줘. 제 발!”

당신은 이 불같은 표현들을 알아보겠는가? 틀림없이 그 려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말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침묵.** 관계에 상처가 났을 때 혼한 반응은 “조용한 치료”이다. 그저 상대방과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랑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날 좀 혼자 있게 놔줘” 라는 비언어적 신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의 고통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들은 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한다.

“이 증상들은, 마치 빨간 신호등이 깜빡이는 것처럼,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동맹군을 동원.**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계 가 깨질 때, 방금 선전포고를 한 국가들처럼 반응한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만을 주장하 면서 동맹군을 끌어 모은다. 그리고 이런 편향된 설명이 전투에서 탄약으로 사용된다. 그런 행동은 불안감과 연약 함을 스스로 드러낸다. 그 문제를 스스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 **테러.** 폭탄 테러와 비행기 납치 등을 자행하는 요즘 세계 의 테러리스트들처럼, 이런 방식의 개인적 공격은 미묘하 게 사전경고 없이 이루어진다.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때때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파괴한다. 성난 표정들과 말, 심지어 신체적 학대까지 가해진다. 때때로 뒤에서 혈 쫓는 공격으로, 개인의 영향력이나 인격을 파괴시키기까 지 한다.

만일 당신이 이런 증상들 중의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이 바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증상 악화시키기 Making It Worse

옷나무는 우리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옷이 오르면 그 자체로 걷디기 힘들다, 굽고 싶은 충동은 차라리 고문이다. 굽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굴복하면 그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옷독이 퍼지면서 고통이 마구 확대된다. 그 곤경의 바른 해결책은 연고를 발라 가려운 피부가 당신에게 사정사정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깨져도 우리의 생활이 비참해질 수 있다. 옷독이 올랐을 때 우리의 행동처럼,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시도한 해결책들이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종류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비효과적인, 즉 자멸적인 전술 몇 가지를 살펴보자.

* **무시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새인 타조는 갑자기 위협이 닥치면 모래속에 머리를 처박는 반응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깨진 관계에 대하여 그와 비슷하게 반응한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암처럼 번져 결국 관계를 잡아먹어버린다.

* **상대방을 공격한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갈등의 본래 원인은 종종 잊혀진다. 욕설이나 헐뜯는 말이 튀어나와 벽을 쌓음으로써 진짜 문제는 가려진다.

* **조종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상황을 조종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방식으로만 보고 생각하게끔 만들려 한다. 이것은 사실상 교묘한 형태의 교만이며 이기주의이다.

* **영똥한 사람들을 개입시킨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보다 소문을 퍼뜨리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 끌어들이기도 한다(잠 16:28).

*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는 잘 듣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귀를 빌려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문제를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 **시기와 전술을 무시한다.**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해도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노력에 적절한 타이밍과 사랑의 전술이 결합되어 있다면,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23

* **덮어버린다.** “그냥 잊어버리자.” “자 그 이야기는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와 같은 말들은 진정한 화해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괜찮다. 그러나 만일 부러진 팔에 반창고 붙이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다. 가슴에 입혀진 상처는 피상적인 말 정도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 **버린다.** 때때로 인간관계가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무언가 잘못될 때는 땀땀이 오히려 더 곤란한 것 같다. 그래서 최선의 해결책은 그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 깨진 관계는 잘못 다루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회복에 필요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기꺼이 따르려고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바른 방법 The Right Pattern

잠시 가정해 보자. 당신은 지금 적의 성을 함락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외로운 군인이다. 당신은 천천히 접근한다. 마침내 성이 시야에 들어온다. 대단한 장관이다. 돌린 성벽은 거대하고 군인들이 도열해 있다. 커다란 석 대문들은 난공불락으로 보인다. 당신은 너무 놀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서있다.

다소 우스운 말 같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기분 상한 사람과의 우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치 요새화된 도시를 함락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분노는 창살 대문처럼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
(잠 18:19).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

은 아니다. 요새화된 도시를 마주하고 있는 그 외로운 군인에게 계획이 필요하듯이, 당신은 뭘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 주신 행동계획을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인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들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후 5:19).

우리는 그분의 모범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들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고난 받으셨고, 초청하셨고, 용서하셨다.

***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

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복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10).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주도권을 잡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비록 우리가 잘못이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열망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첫 단계를 밟으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롬 5:8).

하나님
사랑
겸손
고난
초청
용서
당신

*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권리들을 제쳐두시고 우리의 관심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셨다. 이 놀라운 겸손의 조치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3:18).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오직 고통스러운 희생제물이 드려져야만 회복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기꺼이 우리를 위한 그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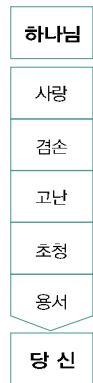
이 얼마나 놀라운 조치였던가! 고난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것이었다. 자기의 아들로 죽기까지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일이었다.

* **하나님은 초청하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7-18).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기초로 하여 제공된 평화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그

분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볼 기회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회복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다. 하나님께 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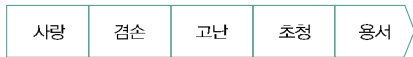
***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우리는 비록 반역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오셨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과분한 친절은 “나 성나지 않았어. 그대로 갚아주면 돼!”라는 슬로건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보복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과분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값없이 용서해주고자 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은 멍들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택할 때 그기초가 되어야 마땅하다.



바른 실천 The Right Practice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 모든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야 마땅하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제에 직면할 때, 이것은 절대적 필요사항이 된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화해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방법을 주신다.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 겸손, 고난, 초청, 용서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제1단계]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1-2). 우리와 같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일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주도권을 잡아야만 한다. 이 단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해야만 한다. 먼저 사랑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자.

*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깨진 관계 속에서는,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자주 대체된다. 사실, 감정에 관한 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와 상대방 사이에서 가슴따뜻한 수용의 느낌을 갖게 된다.

* **사랑은 가짜가 아니다.** 강요된 미소나 거짓된 친절 표정은 피상적이고 작위적이다. 그것들에는 깨진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진실하고 영구적인 품성이 빠져있다. 남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 사랑은 진짜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사랑엔 위선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롬 12:9).

* **사랑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랑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며,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제조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은 인간의 리그 밖

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분이 대신 해주어야 한다. 그분이 바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고전 6:19). 성령님의 인도 하에서,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주어야 할 그들을 진실로 사랑 해줄 수 있다(갈 5:22).

***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 예수님은 우리 가 증오에 대하여 친절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해 악담하는 자들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한다.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관심을 보여주 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에 대하여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랑의 속성이 아닌 것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 사랑은 개인적 감정을 통제한다.** 이 개념은 실천하기 가 쉽지 않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들에 대해 옳은 행동을 하기로 했다면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만 한다. 사실 우리의 악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억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부인(自己否認)의 한 부분이다(마 16:24). 감정이 상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바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언제나 중요한 것이다.

*** 사랑은 거울을 들여다본다.** 어쩌면 남을 사랑하는 일 의 가장 어려운 측면은 우리 자신의 태도를 살피는 일 이 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옳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 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 7:5). 이것은 어렵고 때로 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을 의지하고 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과 생각을 심어주시는 것이다(롬 12:2).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분노와 쓴뿌리와 악의를 친절과 온화한 마음과 용서로 바꿔버릴 수 있다(엡 4:31-32).

*** 사랑은 먼저 행동한다.** 우리가 타고난 성향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상황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 기꺼이 나서야 한다. 그들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 그들에게 가서 문제해결을 시작하는 것이다(마 5:23-24; 18:15). 그렇다. 깨진 관계는 우리가 사랑 속에서 나설 때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다는 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어거스틴

*** 곰곰이 생각해보자.** 최근에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가? 당신은 감정을 제쳐두고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는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에게 복수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보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그 첫 시도를 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화해를 위해 얼마나 더 계속 사랑해야 할까?

[제2단계] 자신을 낮추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가 교만이다. 문제는 제거될 수 있어도 자아가 방해한다. 그 어떤 화해의 행동도 약자라서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상대방이 나를 약하게 보는 것이 싫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거나 그들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존심을 위한 이런 완고함은 그릇된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렇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서로 화목하기 위해 자신을 낮출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

가가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정말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 겸손의 정의.**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 보면, ‘겸손’(humility)은 ‘교만’(pride)의 반대말이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교만일까? 그 사전 편집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국가 안에서 품는 바람직한 의미의 자부심 같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여기서 겸손의 반대말은 자만, 자기중심적 성향, 그리고 거만이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헨리제이콥슨

만일 겸손이 이런 종류의 교만의 반대말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롬 12:3).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다(빌 2:4).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열망할 것이다(엡 5:21).

*** 겸손의 실천.** 겸손이 관계회복 과정에 어떻게 작용할까? 첫째, 만일 우리가 자만에 찬 사람들이 아니라면, 상대

방과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어떤 행위도 너무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며, 어떤 희생도 너무 크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만일 우리가 남들의 관심사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감정과 의견도 우리 자신의 감정과 의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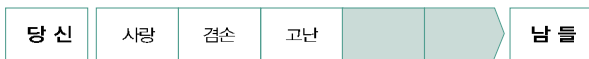
끝으로, 만일 우리가 겸손하다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계속 존중해줄 것이다.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분처럼 자신을 낮춘다면,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빌 2:5).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단계인 개인적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 곰곰이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우리와 다시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으셨는가? 만일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데 그렇게 어렵고 인색한가? 가장 최근에

당신이 옳았지만 상대방을 먼저 찾아감으로써 당신을 낮췄던 때가 언제인가? 만일 스스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당신의 겸손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제3단계]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벧전 4:1).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신인(神人: God-man)이셨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들의 고난은 절대로 그분의 고난과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리스도 같은 고난을 받는 일에는 헌신, 용기, 확신, 감정이입, 인내 같은 특징들이 수반된다.

* **헌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셨다(마 26:39).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롬 12:18). 갈등이 일어날 때 -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

우리는 고난이 화해 과정의 일부임을 알고 화해하는 일에 헌신해야 마땅하다.

* **용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고난이 클 것을 아셨지만, 담대하게 맞이하셨다(눅 9:51).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우리는 종종 고통 때문에 그 문제들을 대면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 **확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벧전 2:23). 오,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열쇠이다.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게 일하신다(롬 8:28).

* **감정이입.**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동일하셨고 인간의 슬픔을 겪으셨다(사 53:3-4). 그분이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우리도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들이 아플 때 우리도 아파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4-15).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그들은 당신의 지식에 대해 무관심하다”

-존 케이스

* **인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히 12:1-3). 남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말 참기 힘들다. 특히 깨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난, 오해, 거부는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을 일으킨다. 그러나 만일 개인적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면 그 과정에 포함되는 상처는 감내되어야 한다.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잃어버린 우정을 다시 얻거나 깨진 결혼생활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가치가 있다.

그렇다. 깨진 관계를 고치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만일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 모든 고난은 어디에서 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을 보라). 진실한 감정이입의 표현이 어떻게 쓴뿌리와 증오의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당신은 산산조각이 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고난을 감내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회상해볼 수 있는가?

[제4 단계] 화해를 청하라

당신	사랑	겸손	고난	초청	▶	남들
----	----	----	----	----	---	----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 18:15).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할 때,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의 하나는 그와 함께 조용히 앉아 대화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들을 피하는 것이 훨씬 쉽다. 조용히 우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려고 하다가도 성난 감정이 분출되게 내버려 두기가 쉽다. 종종 당황, 두려움, 심지어 분노 때문에 직접 대면이 회피된다. 그러나 만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대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을 청하여 그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서 그 차이점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계명.** 화해를 청하는 것은 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분쟁을 해결하는 바른 방법은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함께 만나 해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다. 우리가 남을 알고도 괴롭혔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든지, 우리의 책임은 그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외에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

* **정직의 필요성.** 만일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면, 일대일 대면은 무가치하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났다면,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논쟁을 위해서나 복수를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계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우리를 괴롭혔다면 그것을 말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났다면, 반드시 그 말을 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문제가 종종 관련당사자들에게 국한되지 않을 때 갈등은 더 악화된다.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꼭 해야 할 말은 잘못된 그 당사자에게만 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뒤에서 헐뜯기, 중상, 속덕공문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야 모든 관련자들의 명예도 보호받는다. 그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음으로써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 행동에 의하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반응하도록 할 수 있다.

* **중재자들이 개입할 시기.**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면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태복음 18:16에 따르면, 개인적 대면이 실패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국외자들의 지혜와 영향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그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해도, 그들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어떤 오해도 막아줄 증인들이 될 수 있다. 만일 중재자들의 도움을 받고서도 성공을 하지 못할 때는, 그다음 조치는 그들을 교회 앞에서 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여 문제들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해야만 한다.

*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장 최근에 적과 마주앉아 당신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문제들을 대화로 풀려 한 적이 언제인가? 다른 사람들을 대면할 때 왜 그렇게 솔직하기가 힘든가? 경건한 중재자를 찾기보다는 동맹군을 찾는 일이 왜 더 쉬운가? 만일 당신이 어떤 두 사람의 상호불화를 알고 있다면, 그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제5단계] 용서하라

당신	사랑	겸손	고난	초청	용서	남들
----	----	----	----	----	----	----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반 1학년 어린이들에게 용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 선생님은 만일 한 급우가 다른 급우를 못살게 군다면 그들은 친절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만일 그 괴롭힌 아이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그를 용서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반 아이들이 걱정 어린 얼굴로 서로 쳐다보더니 마침내 한 작은 소녀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어려워요!”

그 아이가 옳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깨진 관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는 한 회복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해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반영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 **사법적 용서.** 이것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저 눈감아주거나 변명해주는 사안이 아님을 의미한다. 사법적 용서는 정의를 세워주는 일과 관련 있다. 사법적 용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행하는 잘못을 인식하며, 동시에 적절한 처벌의 정당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용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렇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일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 값이 치러졌다. 이 사실이 상호간의 용서를 올바른 일로 만들어준다.

* **조건적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서로를 기꺼이 용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용

서는 잘못된 사람들이 회개하려 하지 않는 한 완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눅 17:4).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솔한 인정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와 함께 그것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 결단적 용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감정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지만(시 7:11), 용서하기를 선택하신다(엡 4:32)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피해를 주었든지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 감정적 용서.** 비록 우리는 마음 내키지 않아도 용서를 해야 하지만, 적절한 감정적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이것은 서로 용서함에 있어서 의지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점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친절, 겸손, 상냥함, 인내 등과 더불어 가슴에서 우리나라는 긍휼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참아주어야 하며, 서로에 대하여 품을 수 있는 어떤 불평이든지 용서해주어야 한다(골 3:12-13).

“우리는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모욕을 퍼부을 때, 이런 이상들은 실천에 옮기기 쉽지가 않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열거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바른 태도를 가리켜준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유와 친절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

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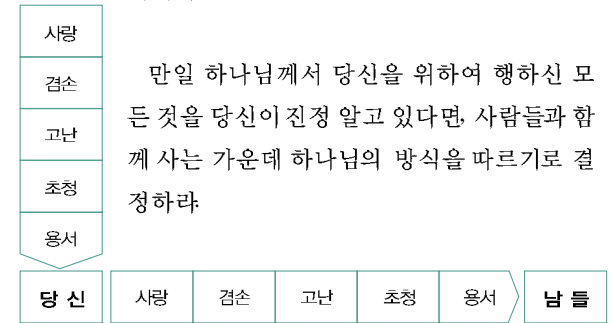
만일 우리가 진정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여 우리의 용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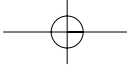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 곰곰이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하기가 힘들게 느껴지는가? 왜 그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일까?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가?

*** 하나님의 방법/우리의 실천.** 그럴듯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진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기로 작정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는 그 갈등상황을 즐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멋진 싸움을 즐겨. 그래야 인생이 재미있어.”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웃은 담 너머 다른 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동료들은 성공의 사다리를 먼저 올라가려고 항상 싸운다. 어떤 교인들은 비즈

니스 회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성경은 이런 그릇된 태도의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씀한다. 야고보 사도는 말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약4:1).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타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랑, 겸손, 고난, 초청,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잘못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배은망덕의 극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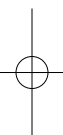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What If It Doesn't Work?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 깨진 관계에 관한 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를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신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다음의 제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시편기자는 이렇게 썼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시 120:6-7). 당신은 그의 좌절감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가? 당신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어도 상대방은 계속 당신을 공격하고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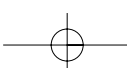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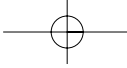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러나 무엇을 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관계가 무너질 때, 양쪽이 모두 그것을 고치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한 쪽은 화해하려 하지만 다른 쪽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하나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책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회복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이다. 그것은 쓴뿌리, 두려움, 분노, 수치감, 원한, 심지어 교만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못된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면, 그런데도 그 관계가 긴장상태로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 직고해야만 할 것이다.

***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실 줄을 신뢰하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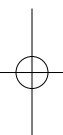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충고를 주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딤후 2:24-25).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대할 때, 우리는 다투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상냥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하고 예의바르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노력들이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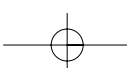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 제 삼자의 도움을 받으라.** 때때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 하는 종과 그의 주인 빌레몬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명백히, 그 종이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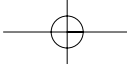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고 도망쳤었다. 얼마 후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었다. 바울은 놀라운 성도의 사랑의 표현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순히 종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로 회복시켜주라고 호소하였다. 바울은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손으로 인해 당한 손실이 있었다면 전부 갚아주겠다고 말했다(몬 16-18).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우리에게도 중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중재자는 경건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판단에 있어서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한다. 목사이든, 상담자이든, 믿을 만한 친구이든, 중재자는 우리가 실패한 부분에서 효과적 결과를 낼 수 있다.

***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비록 남과의 갈등의 원인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그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열망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올바르





게 대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4-7에서, 바울은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들을 묘사하였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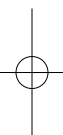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아브라함 링컨

*** 인내해야 한다.** 이것은 보복을 자제하려는 의식적인, 때로는 힘든 노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리스도처럼 반응하는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 친절해야 한다.** 친절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의 대적은 그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무방비로 당하게 될 것이다.

***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원수들이 성공할 때, 우리는 그들의 행운을 탐내서는 안 된다. 비록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잘 보이려고 그릇되게 우리를 추켜세우려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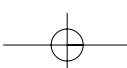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떤 말도 적절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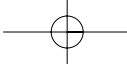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교만은 갈등 해결에 장애물을 쌓는다. 교만은 종종 누더기가 된 우정을 깎는데 필요한 개인적 희생을 못하게 막는다.

***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 불을 끄기 위해 휘발유를 붓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 험악한 말로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해도, 경멸조의 사려 깊지 못한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동등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 급히 성내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짜증나게 할 때, 생각 없이 분노를 발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일촉즉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질을 부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때는 상대방이 성질을 부릴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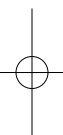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해럴드 스피스

***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자행된 잘못들을 하나하나 정신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앙갚음을 하고 싶은 욕망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악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대적이 망하거나 어떤 종류의 불의라도 당할 때, 우리는 그의 비참한 상태를 고소해해서는 안 된다.

***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사람들이 문제들에 적절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한다.

***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직한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더러운 빨랫감”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걸어두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 믿어주어야 한다.** 사랑은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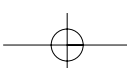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 희망적이어야 한다.** 사랑은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며, 항상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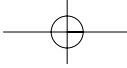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만일 당신이 악인의 불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여 악인이 두 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거스틴

*** 항상 충성스러워야 한다.** 사랑은 앞길이 험해질 때도 참아낸다. 이것은 우리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화해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헌신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가 실패했을지라도, 이런 제안들은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야 하며, 화해가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계유지 Relationship Maintenance

우리 정직하게 말해보자. 누구도 깨진 관계의 고통과 당황스러움을 겪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무척 원한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그러려면 관련당사자 모두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때, 인간관계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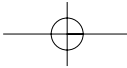
***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서로 자유롭게, 규칙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이해심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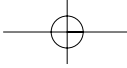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 정직하게 대화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교만과 위선을 제거하라고 가르친다(벧전 2:1). 성경은 또한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다(골 3:9).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엮어준다.

*** 서로 존경하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우리 개인의 행복에 근본적이다. 남들이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주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상호존경심이 표현될 때 우리는 서로를 가슴 따뜻하게 수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수용은 서로를 계속 존중해줄 때 유지된다(롬 12:10).

*** 분노를 풀라.**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엡 4:26)고 하였다. 우리의 분노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찾아가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을 더 잘 자게 될 뿐 아니라, 문제들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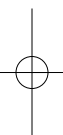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꼭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조지 허버트

*** 인내하라.**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한 점들을 눈감아줄 필요가 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서로의 잘못에 대해 참작해주어야 한다(골 3:13).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적이 되기보다, 겸손하고 관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

*** 서로의 문제들을 공유하라.** 문제를 직시하자. 우리에게서 서로가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그렇다.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한다(갈 6:2). 서로의 문제들을 공유할 때 서로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관계가 훨씬 안정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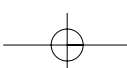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 성경은 솔직한 책망이 은밀한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한다(잠 27:5). 우리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잘못에 대해 그에게 말해주기를 꺼려할 수 있지만,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그저 입을 다물고 그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다. 참되고 자비로운 비판은 다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그 목표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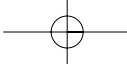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남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해주며 던지는 미소는 분노와 개선이 왜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윌리엄 스타인메츠

비록 이런 종류의 비판이 마음 상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우정의 아픔이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정말 서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관계가 개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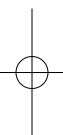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 서로 섬겨주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롬 15:2). 이런 섬김의 태도는, 이기주의는 관계를 깰 뿐이지만 자기희생은 관계를 복돋워준다는 사실에 근거





한다. 우리가 서로 섬겨줄 때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

그렇다. 이런 유지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대로 충성스럽게 실천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계속 튼튼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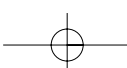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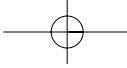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사례 : 시도해 본 사람들 Case Studies : People Who Tried

이 책에서 밝힌 원리들은 단순히 듣기 좋은 이론들이 아니다. 이 성경적 진리들은 실제 생활에서 역사한다. 그리고 그 원리들은 기꺼이 시도하려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동안 관계가 깨진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이 소책자에서 발견된 원리들을 기초로 해서,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어느 부부.** “우리의 결혼생활이 도무지 지속될 것 같지 않았던 때가 가끔 있었어요. 사실 한 번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심한 막말로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서로 전혀 말하지 않고 지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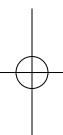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요 며칠 동안 각자 당한 상처를 핥으며 서로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화해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별로 다투지 않아요. 그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다들 가치가 전혀 없어요.”

*** 어느 십대.** “관계요? 누구에게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언제나 관계를 깨기만 해요. 부모님과 아니면 내 동생이나 언니와 그렇지요. 그리고 학교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모든 애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아요. 몇몇 친구들을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가끔 싸우기까지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면 또 화해하지요. 아마 우리가 정말로 서로 좋아하나 봐요.”

*** 어느 비서.** “항상 나를 비난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문제를 꺼내 이야기했더니 개가 기분이 나빠졌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도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우정을 회복하기는 했어요. 개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를 비난하는 일은 멈췄어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나는 정말로 개를 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말도 해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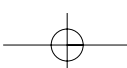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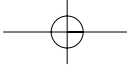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 어느 공장 노동자.**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다른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고 청구서들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요. 하지만 때때로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 번은 사장과 한바탕 했지요. 서로 막 퍼부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사과했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늘 그래요. 친절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개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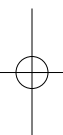
*** 어느 기업 임원.** “모든 관계는 사실 성실성에 달려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요. 만일 관계가 손상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각각 옳은 일들을 하겠지요. 하지만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래요. 한 번은 경영상 어떤 결정을 내렸더니 몇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졌어요. 그걸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참고살아야 되요.”

*** 어느 노인.** “당신도 나만큼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거요. 내 친구들





과 친척들은 이미 거의 떠나가 버렸소.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오. 옛날에는 이렇게 늘 조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는 어떤 늙은이들처럼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하도 난리를 떠놔서 이제는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외롭고 비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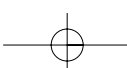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첫 걸음을 내딛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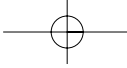
Take The First Step

당신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졌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였는가? 무시해버렸는가? 그 사람을 공격했는가? 그 상황을 조작했는가? 엉뚱한 사람들을 개입시켰는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가? 시기와 전술을 잊었는가? 감춰두었는가?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렸는가?

이런 것들은 모두 그릇된 일이다. 옳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을 보이신 그 조치들을 따라 - 사랑, 겸손, 고난, 초청, 용서로 -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당신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본을 받으라고 교훈한다(엡 5:1).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를 위해 적절한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은 없지만, 성경적 절차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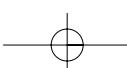


을 따르다 보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깨진 관계가 당신의 첫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불순종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롬 5:12).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즉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딤후 1:15).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놓으셨다.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요 1:12).

지금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으라.

- ❶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 ❷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 생활 안내
- ❸ **오 산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 ❹ **복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참 행복의 설계
- ❺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가정 생활
- ❻ **왜 살아야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 ❼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 ❽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 ❾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 ❿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 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 ⓫ **다시 찾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 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 ⓭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 ⓮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평생 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 ⓯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얻는 부모의 영적 평안함
- ⓰ **결혼의 약속**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결혼의 4가지 단계
- ⓱ **어떻게 하면 자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길
- ⓲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신앙
- ⓳ **균형있는 기독교**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
- ⓴ **하나님을 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 나가는 길
- ⓵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 ⓶ **교회지도자의 자격**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지도자의 대한 성경적 기준
- ⓷ **갈등 해결의 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성경적 방법
- ⓸ **개인관계를 회복하려면?**
개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해답



「오늘의 양식」 방송 안내

현재 오늘의 양식은 전국의 지역 극동방송국에서 매일 15분씩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방송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국	방송시간	주파수
영 동	23:25~23:40	FM 90.1MHz FM 102.9MHz
대 전	22:45~23:00	FM 93.3MHz
포 향	06:45~07:00	FM 90.3MHz
울 산	09:45~10:00	FM 107.3MHz
창 원	22:10~22:25	FM 98.1MHz
목 포	08:35~08:50	FM 100.5MHz
제 주	15:45~16:00	AM 1566 kHz FM 101.1MHz
서 울	추후실시	FM 93.3MHz

「오늘의 양식」 인터넷 영어 방송 안내

‘오늘의 양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의 양식’ 본문에 대한 영어 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과 주일날은 쉽니다.) 미국 RBC의 원문 방송을 ‘오늘의 양식’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오늘의 양식’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으며, 표준 발음의 영어 음성 서비스를 기다리던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려면 ‘오늘의 양식’ 홈페이지로 가서서 (<http://www.odb.or.kr/daily.asp>) 상단에 표시된 메뉴 중에서 ‘영어방송’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Real One Player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독자께서는 메뉴의 ‘Real One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설치하신 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홈페이지에 신설된 영어 방송 서비스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은혜와 유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간증문을 모집합니다.

오늘의 양식'은 접자본을 포함하여 연간 120만부가 발간되는 국내에서 가장 잘 읽히는 매일 매일의 QT용 신앙서적입니다.

'오늘의 양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체험하신 귀한 은혜를 책으로 발간하자는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증문을 모집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분량 : A4용지 1매 분량 내외
(편집 사정에 따라 원고 분량 조정)
- 제출기간 : 2005년 8월 30일 이전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오늘의양식사'
우편번호 : 463-816
E-mail : odb@hcc.or.kr
- 채택된 분께는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성원자 번호	전화		
주 소	직 분	접수자		
성 명		전화		
주 소		H·P		
우편번호	부 수	월	부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구 분	① 신규	② 주소변경	③ 부수변경	④ 재신청
시리즈 번호	1	2	3	4
신청부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은행()은행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시리즈 24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What Do You Do With a Broken Relationship?
©RBC Ministries

인쇄 : 2005년 6월 20일

발행 : 2005년 6월 26일

감수 : 김상복, 신표근

번역 : 차동재

편집 : 최부웅, 신영균, 오용근

발행인 : 김상복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쇄처 : 소망사
(02)392-4232